2008. 11. 20
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

폴란드의 최근 경제 동향

1. 경제성장률

□ 2008년 경제성장률 5.4%, 2009년 4.3% 전망

○ Economist지의 2008~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따르면 폴란드의 2008년 경제성장률은 5.1%로 6개월 전 전망 자료에 비해 0.3%포인트 하락하였으나, 2009년 전망치는 4.3%로 6개월 전과 최근 발표 수치에 차이가 없음.

-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으며, 오히려 러시아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음.

○ 주요 교역상대국인 EU 회원국의 경기 위축이 폴란드의 수출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, 즈워티와 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어느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<표 1> **국별 GDP 전망치 변동 추이**

단위: %

국 가	2008 전망치			2009 전망치		
	현재	6개월전	변동	현재	6개월전	변동
유로지역	1.2	1.6	-0.4	0.6	1.6	-1.0
중 국	9.8	9.6	0.2	8.5	9.0	-0.5
인 도	7.3	7.8	-0.5	6.8	7.2	-0.4
러 시 아	7.5	7.1	0.4	6.8	6.2	0.6
브 라 질	4.6	4.3	0.3	3.4	4.1	-0.7
체 코	4.5	4.7	-0.2	4.3	5.4	-0.9
헝 가 리	2.0	2.4	-0.4	3.0	3.6	-0.6
폴 란 드	5.4	5.1	0.3	4.3	4.3	-

자료: Economist

2. 재정정책

□ 2009년 정부 예산안 의결(재정적자 182억 즈워티)

○ 세입 2,699억 즈워티, 세출 2,881억 즈워티 규모의 2009년 정부예산안이 9월중 의결되었으며,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2억 즈워티(약 66억 달러)로 예상됨.

- 한편, 동 예산안 마련을 위하 경제전망(GDP성장률 4.8%, 소비자물가상승률 2.9%, 실업률 8.5% 등)은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, 다소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함.

-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확보할 세입규모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120억 즈워티로 예상되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.

3. 금융·통화정책

□ 9월중 인플레이션 4.5%로 감소

○ 9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.5%까지 감소하였으며, 이에 따라 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상황임.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기업·가계부문 신용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전망으로 보임.

□ 2010년 유로화 도입 관련 찬반 의견 분분

○ 최근 정부는 유로화 도입 시기를 2010년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라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한 논의가 폴란드 경제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였음.

○ 물가 안정성, 장기 금리 및 재정 건전성[1] 등 유로화 도입을 위한 EU의 각종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○ 또한,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율 안정성도 유로화 가입 이전 2년간 ERM-2[2] 체제를 운영할 것이므로 충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
---

1) 재정적자: GDP 3%이하, 정부채: GDP의 60%이하

2) ERM-2(Exchange Rate Mechanism-2): 자국통화와 유로화의 기준환율 및 변동폭을 설정하여, 일정 변동폭 안에서의 환율 변동만을 허용

- 정부는 2009년 중반 ERM-2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서 국민투표와 헌법수정(EU규정에 맞는 금융·통화정책 구조 정비)을 거쳐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음.

○ 2008년말과 2009년 상반기는 유로화 도입에 대한 폴란드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.

- 찬성측 주장: 경제 안정성 제고, 자본비용 하락, 환율 위험 제거, 유로지역내 거래 비용 하락

- 반대측 주장: 통화정책 자율성 상실, 물가상승 우려

4. 노동시장

□ 인적 자산을 포함한 지적 자산에 대한 관심 고조

○ 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동력의 양과 평균 교육기간으로 대변되는 노동력의 질에 더하여 최근에는 지적자산(intellectual capital)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.

- 지적자산은 인적 자산을 포함하여 교육 및 과학부문 잠재력, 노동자들의 행동양식 성숙도, 국가 이미지 등 여러 가치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임.

□ 폴란드는 유럽 16개 국가 중 지적자산 부분 13위 차지

○ 최근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지적자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 16개 국가 중 13위를 차지하였으며, 지적자산 부문에 상당한 보강 없이는 현재의 성장률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.

○ 동 보고서가 제시한 7가지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으며, 이의 성공여부에 따라 폴란드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달려있음.

- 가족발전정책의 효율성 제고, 교육의 질 제고, 노동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, 증가하는 노년층 경제활동 수요 충족, 기업혁신 지원, 세제 및 법제의 간소화, 지적자산의 꾸준한 변화 장려

5. 대외거래

□ 상품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주요인

○ 최근 12개월(2007년 9월~2008년 8월)과 직전 12개월의 대외거래 통계수치를 비교해보면, 미달러화 약세(약 25%)로 인해 수출 및 수입증가 효과가 큼.

- 즈워티화 표시 수출액은 이전 기간 대비 6.6% 증가에 그쳤으나, 달러 환산액은 32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수입액에 있어서도 즈워티화 표시 수입액이 9.4% 증가한 반면, 달러 환산액은 36.0% 증가함.

○ 내수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폴란드 제품에 대한 수출수요 감소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최근 12개월 기간 중 222억 달러에 달하여 이전 기간 대비 9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기록됨.

○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이전 기간 대비 102억 달러 증가한 26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
- 서비스 및 경상이전수지는 소폭 개선되었으나, 상품 및 소득수지의 악화 수준을 완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.

○ 폴란드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EU 기금 및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액을 통하여 대부분 보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, 최근 12개월 기간중 FDI 유입액이 229억 달러에 그쳐 이전 기간(261억 달러) 대비 축소되고 있는 점이 우려됨.

<표 2> **폴란드 경상수지 현황**

단위: 억 달러

	최근 12개월	이전 12개월	변동
상 품 수 지	-222	-129	△ 93
수 출	1,787	1,348	439
수 입	2,009	1,477	532
서 비 스 수 지	50	31	19
소 득 수 지	-188	-143	△ 45
경 상 이 전 수 지	97	80	17
경 상 수 지	-263	-161	△ 102

자료: Nordea Bank Polska S.A.

□ 즈워티화 약세 지속 전망

○ 폴란드의 경상수지 현황 및 국제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, 폴란드 즈워티화는 그간 강세 추세에서 반전되어 상당 기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6. 기타: 경제자유화지수

□ 정책과 제도를 통한 경제적 자유 보장 정도 측정

○ 경제자유화 지수란 한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개인 선택, 자발적 교환, 자유경쟁, 사유재산 안정성 등을 경제적 자유활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5개 분야의 변수를 통해 측정함.

- 경제자유화 측정관련 5개 분야: 정부의 크기, 법제와 재산권의 안전성, 건전한 신용획득, 국제무역의 자유, 금융・노동・기업부문에 대한 규제

□ 폴란드의 경제자유화지수는 개선 추세이나 아직 EU 평균에 미달

○ 2008년 폴란드의 경제자유화지수는 6.65(10점 만점)으로 141개 조사대상국 중 69위를 차지하였으며, 1980년대 동 지수가 5.46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간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, 2006년 58위, 2007년 66위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자유화 진척 상황은 여타 신흥 개발국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분석됨.

- 141개 조사대상국 중 10위권 국가: 홍콩(8.94), 싱가포르(8.57), 뉴질랜드(8.28), 스위스(8.20), 영국(8.07), 칠레(8.06), 캐나다(8.05), 미국(8.04), 호주(8.04), 아일랜드(7.92)

○ 그러나 EU 회원국 중 22개국의 경제자유화지수가 7을 초과한 점을 볼 때, 아직까지 폴란드는 EU 수준의 경제자유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.

- EU 회원국 중 하위 5개국: 체코(6.95, 63위), 불가리아(6.82, 68위), 폴란드(6.78, 69위), 루마니아(6.66, 74위), 슬로베니아(6.38, 88위)

○ 폴란드의 경제자유화지수 평가결과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9점 수준에서부터 5점 수준까지 부분별로 자유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.

- 건전한 신용획득(물가수준 및 외국자본의 접근성)면에서는 9.54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고, 국제무역 자유화(관세정책, 무역장벽, 무역규모, 자본통제)면에서도 6.84점으로 양호한 편임.

- 반면, 금융・노동・기업부문 규제에서 6.36점을 기록하였고, 법제 및 재산권 보호에서 5.83점, 정부의 크기(세제, 공기업 등)에서 5.34점을 얻어 부진한 성적을 보였음.

○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자본 흐름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폴란드의 낮은 경제자유화지수는 외국투자자들의 폴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.

【폴란드주재원 제공】